

## 초대 문화전당장 '엔터리·불통 인사' 되풀이 안된다

재단 경영진 비전문가 임명 후폭풍 속 문화부, 후보자 3명 검증 중 조직·위상회복 중대 기로 ... 전문성·리더십·국제 감각 등 갖춰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에 지역이 인정할 수 없는 비전문가를 임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아시아문화전당의 초대 전당장 선임 또한 '전당재단의 엔터리 인사'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통합된 문화전당이 새롭게 출범한 시점에서 조직을 이끌 수장의 선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전당장을 단 한 차례도 선임하지 못한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로 인해 '국내 최대 융복합 문화기관'이라는 허울 좋은 수사만 남았을 뿐, 문화전당 정상화와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었다. 그만큼 선임 전당장 인사는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조직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위상 회복,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당초 전당장 인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사혁신처가 임용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절차를 마무리하고 문체부가 이들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 및 역량 검증에 돌입하면서 늦어도 12월 말까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새해들어서는 전당재단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 등 경영진 인사를 비롯해 직원 인사를 끝으로 조직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전당장 인사가 가장 늦어지는 바람에 지역사회와 시민-문화계에서는 전당재단의 경영진처럼 '불통·엔터리 인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도 지역 여론과 동떨어진 인사가 선임된다면, 통합된 조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문화전당의 정상화는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견인하는 문화발전소로서의 청사진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리더십 부재

로 인한 내부 갈등, 콘텐츠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역에서는 전당장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문화전당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까닭에 저마다 전당장 자격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당재단 경영진 선임을 반면 교사로 삼아 지역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이다.

문화계 모 인사는 "다른 무엇보다 조직 운영과 관련된 압축이 많았던 인사 등은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의 지향점과는 맞지 않다"며 "새 전당장은 콘텐츠 창작자와 유통 플랫폼 구축 같은 전문성과 아울러 문화적 마인드를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문화전당과 지역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새 전당장은 지역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내고, 전당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균형잡힌 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적 감각, 문화적 트렌드에도 밝은 인사의 선임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화전당의 성과와 잠재력을 국내외적으로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식견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같은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전당장이 지난 6년간 공석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선임되는 전당장은 전문성, 리더십, 소통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면서도 "국가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사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중수본 운영

노동부 장관이 본부장

오늘 광주에서 첫 회의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유례 없는 고난도 사고로 드러남에 따라 실종자 구조와 수습 등을 정부에서 직접 맡아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2022년 1월 20일자 1면)과 관련, 사고 발생 2주일 만에 정부 주도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가동된다. <관련기사 6, 7면>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아파트 신

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운영한다. 중수본은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며,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중수본은 실종 근로자 수색과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광주시 등에 교부해 수색·구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해 안전한 수색 환경이 마련되면 전국 구조인력을 가동한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V리그 올스타전 ... 광주 배구 열기 '후끈'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이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렸다. 3년만에 열린 올스타전에는 2850명의 배구팬들이 입장해 선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올스타전에는 김연경을 비롯한 도쿄올림픽 4강진화 주역들과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관련 기사 18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하루 500명 ... 고위험군만 PCR 검사

오미크론 우세지역 26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검사 먼저해야

광주·전남에서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오르내리는 등 역대급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결국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4곳에 새 검사·치료체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밀접접촉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게 되며, 고위험군 외엔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자가검사키트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2면>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의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하고, 이 같은 새 검사·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주 기준 호남권은 오미크론 검출률이

59.2%로 이미 우세화가 됐으며, 광주와 전남은 80%가 넘는 검출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 등 4곳에서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은 밀접접촉 등 역학적으로 확진자와 연관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항원검사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 등이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 선별진료소 검사와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일단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양성(두 줄)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자가키트, PCR 검사는 모두 무료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했다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양성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30%)이 발생한다. 의원 기

준으로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0시 기준 광주 316명, 전남 196명 등 5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316명, 전남 196명이다. 광주에선 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57명(누적 341명), 남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13명(누적 14명), 감염경로 조사 중 97명 등이다. 전남에선 목포 76명, 나주 25명, 무안 19명, 영암 16명, 순천 15명, 여수 13명 등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목포·무안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남도청에서는 국장급 공무원이 신규 확진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광역의 경계를 넘어, Balanced KOREA

초광역협력은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 넘어서 초광역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이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